순천의료원, 횡령·배임혐의 노조 고발

노조, 장의차 수익금 7천만원 전직원 상품권 지급

입찰 참여도 하지 않은 업체 수의계약 의문 증폭

순천의료원이 장의차 위·수탁 운영과 관련 노동조합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순천의료원은 18일 "최근 장례식장 장의차 운영에서 발생한 7000만원의 수익금으로 전 직원 150여명에게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노조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순천의료원 측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조기퇴직자 25명을 위해 장의차 위·수탁계약 업무를 노조측에 위임해 왔으며, 당시 장의차 운영을 했던 퇴직자 A씨는 8년간 장의차를 운영하면서 노조측에 건당 2만~3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조는 다른 업체에 건당 장의차 수익의 30%씩을 받고 위임해 오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입찰공고를 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 7곳이 아닌 보성지역 J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J업체는 노조측과 수의계약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17일 사업자 등록을 해 노조측이 공모과정을 무시한 채 J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장의차 운영수익금으로 상품권 20만원 7매, 50만원 146매를 구입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153명에게 나눠줬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공문을 보내 "장의차량 수입금과 관련한 병원발전기금, 지급된 상품권 환수수안 등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노조는 장의차 운영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병원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장의차 운영 관련 협약 당시 노조에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했다"며 "장의차 관련 수익금을 노조의 자산이라고 생각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수의계약 당시 노조 상무집행간부 5명이 참여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전남도의 시정조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 초 노조로부터 장의차 운영권을 넘겨받아 매달 9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녹차골 향토시장, 관광 축으로

보성군

정종해 보성군수는 18일 "민선 5기 군정을 되돌아보면 군 청사 신축에서부터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개장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 증거로 올해 정부합동평가 1위,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으뜸행정상, 일자리창출 우수기관상, 녹차미인 보성쌀 전국농협 우수 브랜드 쌀 1위, 복지사업종합평가 2관왕, 득량 키조개 다변화 사업 실시 등 각종 평가와 공모 결과를 들고 있다. 104개 부문에서 366억여원의 시상금과 사업비를 거둬들였다는 것이 정 군수의 주장이다.

농림어업 분야 예산을 1000억원대로 끌어올려 지원책을 다양화해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줬고, 그 덕분인지 강소농 316가구,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가 234가구를 각각 육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국내외에 그 명성을 쌓은 보성녹차마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기 위해 보성티아트페스티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고소득 농어가 234가구

벌교 꼬막 세계화 시동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인 벌교꼬막 역시 꼬막웰빙센터 조성, 꼬막종묘배양장 건립, 패류연구센터 건립사업 등에 나서 세계화에 시동을 걸었고, 보성녹돈, 명품배, 딸기, 삼베, 참다래, 웅치 올벼쌀 등도 지역특화품목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인재육성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선정해 보성군장학재단 기금의 추가 조성, 영어평생교육특구 지정, 보성공공도서관 신축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개소 등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조성농공단지 분양, 보성일반산업단지 개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일부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113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은 전남 최초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향후 보성 관광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국차박물관,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세계차나무식물원, 오는 2014년 완공예정인 관광녹차생태공원, 전국 3대 명품 해변 율포솔밭해변, 제암산자연휴양림 등 꾸준히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보성녹차대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의 축제를 열어 보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5만명이 무너지는 등 매년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보성을 떠나고 있다. 교통 여건이 나아질수록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여수시청 실내온도는 28도

에너지절약 추진단 구성… 스위치오프·짠물절전 시행

여수시는 18일 "오는 7~8월 한여름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대비 15%까지 감축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이날부터 각 부서별 '스위치 오프'에 일제히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2~5시까지 피크시간대 지난해 전력량의 20%까지 감축하는 '짠물 절전'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섭씨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모든 사무실과 지하주차장 전등에 대해서는 절반 소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 금지령도 떨어졌으며, 시청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도 한낮을 피해 오전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30분 이상 에어컨을 정지하는 등 순차 운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력수급이 '주의' 단계에 이르면 냉방기 가동은 전면 중단된다.

시는 '에너지절약 추진단'을 구성하고 에너지매니저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냉방온도제한 등 하절기 절약대책 감시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운동은 분위기 조성과 실천의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며 "에너지절약 홍보반을 운영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절약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깔끔해진 고흥읍 거리

고흥군이 지난 2010년부터 모두 100억원을 투입하는 '고흥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군청 뒤 근린공원 조성 등 3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1·2단계 사업 후 고흥읍 시가지.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인구 4개월째 증가… 414명 늘어

광양시 인구가 올 들어 4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에는 대학 및 고교생의 타지역 진학, 직장 이동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왔으나, 금년은 예전과 달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상반기 매달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영광군과 광양시 2개 시군뿐이다.

영광군은 394명(0.7%)이, 광양은 414명(0.3%)이 각각 늘었다.

시는 철강 및 항만 연관 산업의 꾸준한 투자유치, 최근 이순신 대교 개통,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전주·완주 통합 투표 유권자 6만9381명 확정

완주 투표율 33.3% 넘어야 개표… 전주는 21일 시의회 의결로 결정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를 묻는 오는 26일 주민투표의 투표인 명부가 18일 확정됐다. 이번 주민투표에도 역시 사전투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돼 지난 4월 국회의원·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그 위력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이번 투표의 경우 일단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는 전주시의회가 사전투표일인 21일 임시회를 열어 '통합 의결'을 하려는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는 주민투표일에 앞서 21일이나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가 설치된 13개 읍·면사무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 이상이어야 개표할 수 있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오면 통합이 확정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20여년 간 논란을 빚었던 통합 문제를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사전투표제까지 도입된 만큼 찬성이든 반대는 모두 투표에 참여, 소신껏 의견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투표인 명부를 작성한 결과 투표권자는 완주군 전체 인구 8만6762명의 79.9%인 6만93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99명과 부재자 1023명이 포함됐다. 투표권자는 남자(3만5240명)가 여자(3만4141명)보다 1099명 많다.

이들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 3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전주지역은 시의회가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어 의결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전주=박금석기자 nogusu@

농촌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수 있도록

고창 귀농귀촌학교 입학식… 교육생 155명 106시간 교육

고창군이 18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이강수 군수와 박래환 군의회 의장, (주)MBC아카데미 이주갑 대표이사,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김한성 회장 및 관계자, 교육생 155명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귀촌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귀농귀촌자의 연착륙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체계적인 전달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귀농귀촌자에게 적응기회와 희망을 부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복분자, 고추, 수박, 베리류 등 소득 작목과 신지식인 강의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또 귀농 전 준비해야할 사항과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지역주민과 유대관계, 농업기술 및 경영기법 등도 전수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11월까지 운영되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이론 62시간, 실습 44시간 등 모두 106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3년째 이어온 '사랑의 쌀 뒤주'

정읍 정우면 쌀 770kg 어려운 이웃에 전달

정읍시 정우면이 '사랑의 쌀 뒤주'〈사진〉를 통해 3년째 저소득층에 사랑의 손길을 전해오고 있다.

정우면은 18일 "지난 정읍시 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23개 읍면동으로 확산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쌀 뒤주'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익명의 참여자와 면민, 독지가 등 19명이 1200kg의 쌀을 기부해 77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고 430kg을 보관 중이다.

'사랑의 쌀 뒤주'는 지역 기관·단체, 면민, 독지가, 출향인 등으로부터 쌀을 기부 받아 뒤주에 넣어두면 필요한 분들이 직접 퍼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우면 관계자는 "사랑의 쌀 뒤주 운영이 기부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면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정읍 착한가격업소 신규 10곳 안행부 승인

정읍시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10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선정이 완료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마을도시락카페(비빔밥), 국수야(국수), 갈비마을(삼겹살) 등이다.

이로써 정읍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신규지정 10개소를 포함, 모두 38개소가 됐다.

시는 이들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지원, 앞치마 제공 등 업소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천건강장수硏, 노후준비 전문가과정 개강

순창군이 18일 순창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노후준비 전문가 과정을 첫 개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원하는 이번 과정은 노인복지와 사회복지기관 등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노후준비 전문가로 재환원시키는 과정으로 6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개강식에 앞서 전라북도의 협조로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력 협약식을 갖고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오는 24일에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식을 갖고 2기 노후준비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해피하우스사업 참여땐 담장 도색 지원

전주시는 18일 해피하우스사업지역 내 주민이 자율적인 참여할 경우 노후된 골목길 담장을 도색하기 위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인후2동 견훤왕궁로 외 5개소을 담장 도색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해피하우스 지역 내 주민 참여로 도색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11건 적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최근 2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0건이 적발됐다.

해경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시설 관계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120kg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린 화물선과 불법으로 분진을 배출한 낚시어선 등 2척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객선과 유람선 등 선박 3척은 분뇨오염 방지설비와 기름오염 방지설비를 비정상 작동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